

■ 제주시·서귀포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실효성' 논란 보험료 연간 2억인데 보험금은 '짚뚱'

제주도민 사고시 혜택 지난 2016·2017년 가입 ----- 사고 당사자 행정기관 신청한뒤 보험금 수령 ----- "매년 투입 예산에 비해 보험금은 현저히 낮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사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4월 14일과 5월 1일 시민 전체 대상으로 자

전거 보험을 갱신했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도내·외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각 시의 보험 가입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별급 2000만원 한도 등이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상 신청 가능하며, 상법·형법상 14세 미만은 일부 혜택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난 2016년 10월, 서귀포시는 2017년 5월부터 처음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연간 2억원(제주시 1억3000여만원·서귀포시 8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매년 갱신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보험금 지급현황(2016년 10월~현재)은 총 7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2018년 5월~현재)은 총 3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와 보장 내용을 비교해봤을 때 제주지역 보장금액이 많게는 50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보험료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주·서귀포

시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자전거 보험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혜택은 보험회사가 보고 있다"며 "취지는 좋지만 자전거 활성화와 홍보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보장 금액은 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 협사가 설계하는 부분이라 예산에 맞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홍보 차원에서 리플릿·책자 등을 제작해 읍면동에 배부하고 제주시교육청에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둔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현석기자

고유정 '사형 청원' 20만명 돌파 청와대 "재판을 지켜봐야" 답변

경찰 부실수사 논란엔 "진상조사 과정 살필 것"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자 청와대가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4일 '불쌍한 우리 형님 찾아주시고, 살인범의 사형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7일 게재돼 4일까지 22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이 '한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는 공식 답변을 밝혀야 한다.
정혜승 센터장은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고유정이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과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기를 규명하고, 범행 전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도 확보했다"며 "형법에 따라 사람을 살

해하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울러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감용 경찰청장 역시 수사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현장에서 잘 안된 것이 어떤 것인지 밝혀내 반면 교사로 삼고, 교육자료로도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청와대도 경찰의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고유정은 살인 및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15일 제주 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심리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 즉각 백지화하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도로건설 계획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신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에 더 이상의 도로는 필요하지 않다"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로 신설은 소수 부동산 소유자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겠지만, 전체 시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며 "소수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챙겨주려고 세금을 낭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심지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슬로시티를 가꾸는 것이 제주의 가치 보존에 걸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는 사업비 1237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삼성여고 토평동 사거리~호근동 우당 삼거리 4.2km 구간에 폭 35m 6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을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후 환경훼손, 지하차도 건설, 공사 구간 쪼개기 논란 등으로 비판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사업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서핑 즐기는 피서객 4일 오전 이호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서핑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이틀째 급식 중단학교 73곳→ 40곳으로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이틀째를 맞아 제주지역에서는 전날 73개 학교에서 33개교가 줄어든 40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제주본부 주최로 열린 제주지역 공공부문 파업투쟁 승리대회에 참가해 노동조합 임금교섭 핵심요구안을 쟁취

하기 위한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집회에서 "우리의 요구는 과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라는 것이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되거나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되니 8시간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통령과 교육감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지역에서는 모두 172개

학교 중 모두 40개 학교(초 26, 중 10, 고 3, 특수 1)에서 급식이 중단돼 31개 학교는 빵·우유 등을 공급했으며, 6개 학교는 도시락 지참, 3개 학교는 단축수업으로 대신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214학급)과 유치원방과후과정(166학급) 중 파업으로 차질을 빚은 각각 86학급과 3학급은 교직원들을 투입해 운영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총파업 전날인 지난 2일 집단교섭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오는 9일과 10일 다시 집단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표준기자

소나무 600그루 고사시킨 건설업자 실형

제조제 나무에 투입 지법 "죄질 매우 나빠"

제조제를 투입해 600그루가 넘는 소나무를 고사시킨 건설업자와 농업회사 대표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이모(61)씨와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에게는 '상'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김씨의 회사 소유인 서귀

포시 소재 토지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개발허가를 받고 시제치역을 얻기 위해 해당 토지에 생육하는 소나무를 고사시키기로 했다.

이에 이씨는 전통드림과 제조제를 구입한 후 김씨에게 소나무에 드림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제조제를 주입할 것을 지시해 2017년 5월 1일부터 6월까지 해당 토지에 있는 소나무 639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훼손되면 원상으로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은범기자

좌초어선 12시간만에 구조

성산항 앞바다에서 좌초된 어선이 12시간만에 구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성산항 북서

쪽 1.3km 해상에서 좌초된 포항선적 어선 A호(29t·승선원 3명)를 3일 오후 10시10분쯤 민간 구조선을 이용해 옮겼다고 4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10시쯤 좌초됐다. 문미숙기자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 완효적 질소비 효과
- 선충 밀도의 저하
- 토양소독 효과
- 유기물의 부숙 촉진
- 식효효과
- 토양곰팡이 살균 방제효과
- 잡초의 경감
- 가축의 기생충 방제
- 토양의 비옥화
- 토양 미생물 활성화

사용 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취급 품목** 4중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행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